

아홉째주 : 성령을 믿사오며

요한복음 14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 :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은 사도 신경 강해의 아홉 번째 순서로서 **성령을 믿사오며**의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고린도후서 6 : 2 --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기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 주시는 말세이기 때문에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 하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오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충만히 임하고, 성령 세례를 주어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성령은 누구이신가?
2.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는가?
3.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4.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의 삶의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 3 위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1.1 사도 행전 5 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 : 3 --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 :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1.2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서 8 : 14 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1.3 성령을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8 : 39 에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1.4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7 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또 베드로 전서 1:11 은 선지자들 안에 계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 :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6 또 갈라디아서 4:6 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주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 3 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의 foundation 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제 3 위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너집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고, 평범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모두 헛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제 3 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 성령은 어떻게 오실 수 있게 되었는가?

2.1 성령은 온 우주 안에 편재(Omnipresence)하고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시편 139 : 7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 :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 :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시편 139 : 10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령님께서 온 우주 안에 어느 곳에든지 편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온 우주 안에 편재해 계신다면 왜 우리와 관련을 맺지 못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계실 수 없었나요?

성령이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와 관련을 가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2.2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7:37-39 을 보면,

요한복음 7 : 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 :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 :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 : 33 에서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2 :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은 기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 :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 :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3 보혜사 성령(Comforter)

우리와 관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특별히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Parakletos 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위로자, 변호자,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 : 16 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또다른’이라는 말입니다. ‘또다른’의 헬라어는 ‘allos’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똑같은 다른 하나’를 가르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뜻이며, 따라서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나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란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십니다.

3.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관련을 맺으시려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양태(Mode)로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3.1 먼저 **성령의 내주(Indwelling)**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안하시느냐에 따라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것이 갈라 집니다.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또,

고린도후서 13 : 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럼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갈라디아서 4:6 은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사람 안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확신에서 시작하여 다음 step 인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3.2 다음은 **성령 충만(The Fullness of Holy Spiri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신한 사람이 더 큰 축복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선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 :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술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진 사람을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개념입니다.

3.3 다음은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Identification 일 뿐 만 아니라, 권능있는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과 함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3.3.1 죄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위치로 내려 가신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의 사역(Mission)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3.3.1.1 완전한 인간의 위치로 내려 가 순종하신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 : 14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마태복음 3 : 15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자신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의 위치로 내려 가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3.3.1.2 그의 Messiah 사역을 위해서

성령세례는 권능있는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과 함께 은사로 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 :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 :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 :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능력있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능력있는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과 함께, 은사로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3.3.2 사도들에게 베푸신 성령 세례(Apostolic Baptism Of Holy Spirit)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 가에서 회개의 세례(막 1:4; 눅 3:3) 를 베풀면서

마가복음 1 :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였습니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요 7:39; 16:7 행 2:33 참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의 Identification 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의 사역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 :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복음 1 :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 : 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삼위일체의 공동 사역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형체로서 비둘기처럼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신 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행전에는,

사도행전 1 : 4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르자,

사도행전 2 :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을 검토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로 인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identification 이 생겼을 뿐 만 아니라, 성령의 공적 강림(Public Advent of Holy Spirit)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 부터 선언된 것과 성령의 강림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린 것과 비슷합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Apostolic Baptism Of Holy Spirit 의 의미입니다.

3.3.3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Identification 이라는 말은,

그러면 사도 시대 이후의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시발점으로 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고린도전서 12 :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중생하여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해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생한 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써, 교회의 지체 안에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이 곧 성령의 세례로 온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 장 8 절-10 절에는, 성령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2 :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 :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로마서 12 : 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는 다 성령의 은사에 속하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4. 성령이 오신 후의 새로운 가치관

성경에서 오순절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첫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50 일이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지 50 일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10 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 : 1 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제 삼월은 유대 월력에 의하면 오순절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십니다(출애굽기 19 : 20). 모세가 올라 가매

출애굽기 20 : 2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시며 10 계명을 주십니다.

10 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서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10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 : 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 : 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 :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는 삶의 원칙으로 10 계명을 주셨고,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구약의 오순절에 주어진 모든 의문의 법으로서의 율법, 성령의 법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이 세상 법이 지배할 수 없음과 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율법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로마서 7 :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제는 의문의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서에서 말하길,

갈라디아서 5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 :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 :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 :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